

2023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 토론회 ①

# 생활문화 정책의 지역화 방안

**일 시**

2023년 4월 25일(화) 14:00~16:00

**장 소**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 3층 오픈강의실

**주 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23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 토론회 ①

# 생활문화 정책의 지역화 방안

일 시

2023년 4월 25일(화) 14:00~16:00

장 소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 3층 오픈강의실

주 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 CONTENTS

CHAPTER

01

## [발표 1]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현황 / 1

강현조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장

CHAPTER

02

## [발표 2] 경기도 생활문화사업 추진 현황 / 19

최진호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CHAPTER

03

## [발표 3] 기초단위 공공생활문화공간 운영 현황과 과제 / 27

이혜진 | 광명문화재단 문화도시팀장

CHAPTER

04

## 종합토론 | 좌장 : 권순석 / 37

### 토론

조미자 | 경기도의회 의원

최지호 |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주무관

임은옥 |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팀장



# 이

## [발표 1]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현황





# 01

C H A P T E R

## [발표 1]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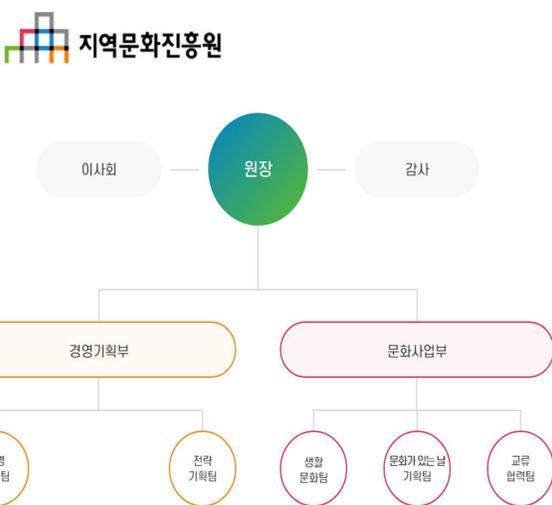
강현조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장





-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 ◆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 ◆ 지역문화 균형 발전, 국민의 문화 활동 및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 생활문화·지역문화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를 위한 사업
  - ◆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 ◆ 생활문화·지역문화 인력 양성 및 연수 등 교육 사업
  - ◆ 생활문화 및 지역 문화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업
  - ◆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분야 조사·연구·평가,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 ◆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사업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역문화진흥원 정관 제4조(사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 이사회
- 원장
- 이사
- 감사
- 경영기획부
  - 경영관리팀
  - 전략기획팀
- 문화사업부
  - 생활문화팀
  - 문화가있는날 기획팀
  - 교류협력팀

비전

문화로 지역을 잇는 문화중심기관

미션

일상의 문화참여 여건 조성과 지역 간 협력활동 지원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지원

사업추진

문화가치 발굴  
및  
문화생태계 구축

국민문화권 보장  
및  
문화가치 확산

일상 속  
생활문화  
환경 조성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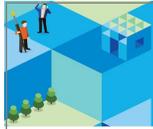
## 생활문화정책방향과 사업현황

○ 생활문화정책

**생활문화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시민 문화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공공 문화서비스 영역으로 제도화**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를 지역문화의 구성 요소로 정의하고, 생활문화의 개념을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과 무형의 활동’으로 규정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필수적으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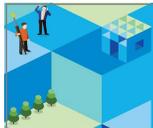
5



○ 생활문화정책

**문화 민주주의 관점  
모든 국민이 창작자이자 향유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간주  
생활문화동호회, 공동체 및 시설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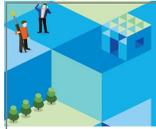
- 정책 실행 현장에서 생활문화는 법적 개념보다 보다 유연하게 적용  
특정 문화예술장르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문제 해결활동까지 포괄



○ 중앙정부 생활문화정책

**추진 방향은 ‘생활문화 진흥 및 정착’에서 ‘재정비’로 변화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과  
문체부가 지역문화진흥원을 통해 실행중인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

- 문체부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를 보조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실행
- 현재까지 집행된 중앙정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예산의 90.7%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해당, 이것은 생활문화센터 수(179개, 23년 4월 기준)의 증가라는 기반 확충 측면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 의지 및 운영주체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 등의 현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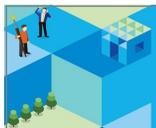
## 생활문화정책방향과 사업현황

###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 활성화 간접지원 사업

**지역문화진흥원**  
**공공 및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문화기반 조성**과 **활동 확대**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현황에 맞는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 지원**

- 22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23년 예산의 통합과 사업내용 재편  
 기초단위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생활문화센터 주말 집중 활성화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지역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8



## 생활문화활성화 사업의 현안

###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 ✓ 주로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예술 단체를 대상의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지원
- ✓ 생활문화센터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 의지 및 운영주체의 역량(운영주체, 담당자)에 따른 편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시설 운영비와 전문인력(계약직, 역량부족) 부족
- ✓ 지원을 받기 위해 공모 사업의 내용과 형식에 맞추는 과정에서 기존 활동 동호회와 공동체 등 단체가 오히려 와해되거나 생활문화활동이 사업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
- ✓ 개인 동호회 활동이 10년 차 이상, 개인 사례비 지원 요구 및 순수한 가치 훼손 문제 발생
- ✓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명칭, 내용 등의 잦은 변화로 지원자들의 혼란이 가중
- ✓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사업으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역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됨(파편화됨)
- ✓ 현 정부,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무관심, 정량적 성과 미흡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어** 있음

9

전국생활문화 활성화 운영 현황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 22. 7.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자체조사

구분	생활문화팀	생활문화사업운영 경험 생활문화축제운영 경험	생활문화 조례제정	생활문화관련 조항 포함	합계
수	20	8	72	37	137건

생활문화	3,530,000,000	4,450,000,000	3,820,000,000	3,850,000,000	4,100,000,000	5,960,000,000	5,442,000,000
------	---------------	---------------	---------------	---------------	---------------	---------------	---------------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방향과 사업현황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변화

- ◆ 생활문화사업 구조 변화는 생활문화 사업 추진 주체 변화와 맞물리면서 진행
- ◆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시행되어 오던 생활문화 관련 사업들이 2021년 지역문화진흥원으로 통합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2014년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맞춤형 생활 문화공간 조성 사업’ 기반 2022년까지 지역문화진흥원이 운영하였던 여러 생활문화사업 중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사업’ 만 초기부터 계획 수립 후 운영지원(문체부 조성)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 [생활문화축제 지원 사업]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시작, 2016년부터 지역문화진흥원(당시 명칭은 ‘생활문화진흥원’이었음) 담당
-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2009년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에서 시작, 2017년부터 지역문화진흥원 담당
- 이외에도 [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이 2021년부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환됨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방향과 사업현황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변화**

◆ 주요 사업

<2022년>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 시행 초기, 독립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21년 생활문화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라는 큰 사업명 안의 하위 프로그램(지원 사업)들로 추진

<2023년>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지원 사업 /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모두의 생활문화 사업

→ 예산 통합과 사업내용을 재편하면서, 지역중심의 생활문화 활동 증대와 접근성 및 인지 제고

생활문화사업 구조변화에 따라 생활문화사업의 정책적 근거가 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사업의 방향성에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단순 만족도 조사에서 고도화된 종합적 성과 도출로 정책적 관심도 제기

2022생활문화 활성화 주요사업

**사회적인 교류와 공동체성 확장성에 생활문화 사업 초점**

지역문화진흥원 주요 생활문화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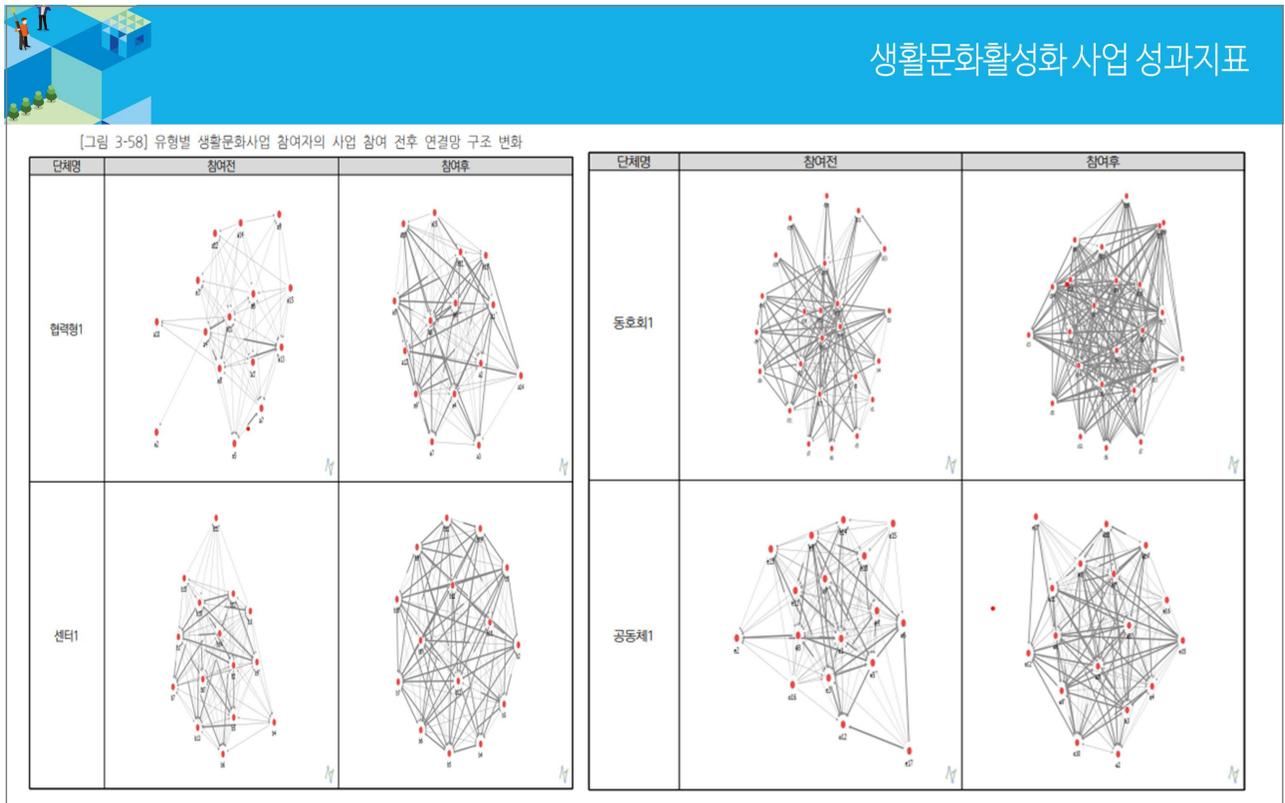
구분	지향점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목적) 지역 중심의 자율적이고 자생적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한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활동 확산</li> <li>(사업내용) 전국 지역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지역 중심의 종합적 생활문화 협력활동 지원/ 지역 주관단체 간, 전국 생활문화 활동가 간 협력 및 네트워크 지원/ 지역별 생활문화활성화 성과관리 지원</li> </ul>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목적)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참여기회 확대</li> <li>(사업내용) 전국 지역주관기관 운영지원/ 신규 생활문화센터 운영 교육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 상호교류지원 / 홍보 지원 및 모니터링 추진</li> </ul>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목적) 생활문화동호회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주체성 증대 및 생활문화 활동 영역 확장</li> <li>(사업내용)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지원(운영 및 활동지원, 교류지원 등), 전국 생활문화축제 개최</li> </ul>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목적) 일상생활의 주민 교류 및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생활권 내 관계망을 형성 및 개인 삶의 문화적·사회적 가치 발견, 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li> <li>(사업내용) 생활문화공동체 유형별(관계형성형, 관계활성화형, 관심확장형)에 따른 공동체 활동지원/ 공동체 간 교류지원 및 전문가 헌정지원/ 성과관리 지원</li> </ul>
생활문화 참여 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목적) 생활문화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생활문화정책 수립 및 생활문화 활동 가치 확산</li> <li>(사업내용)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연구/ 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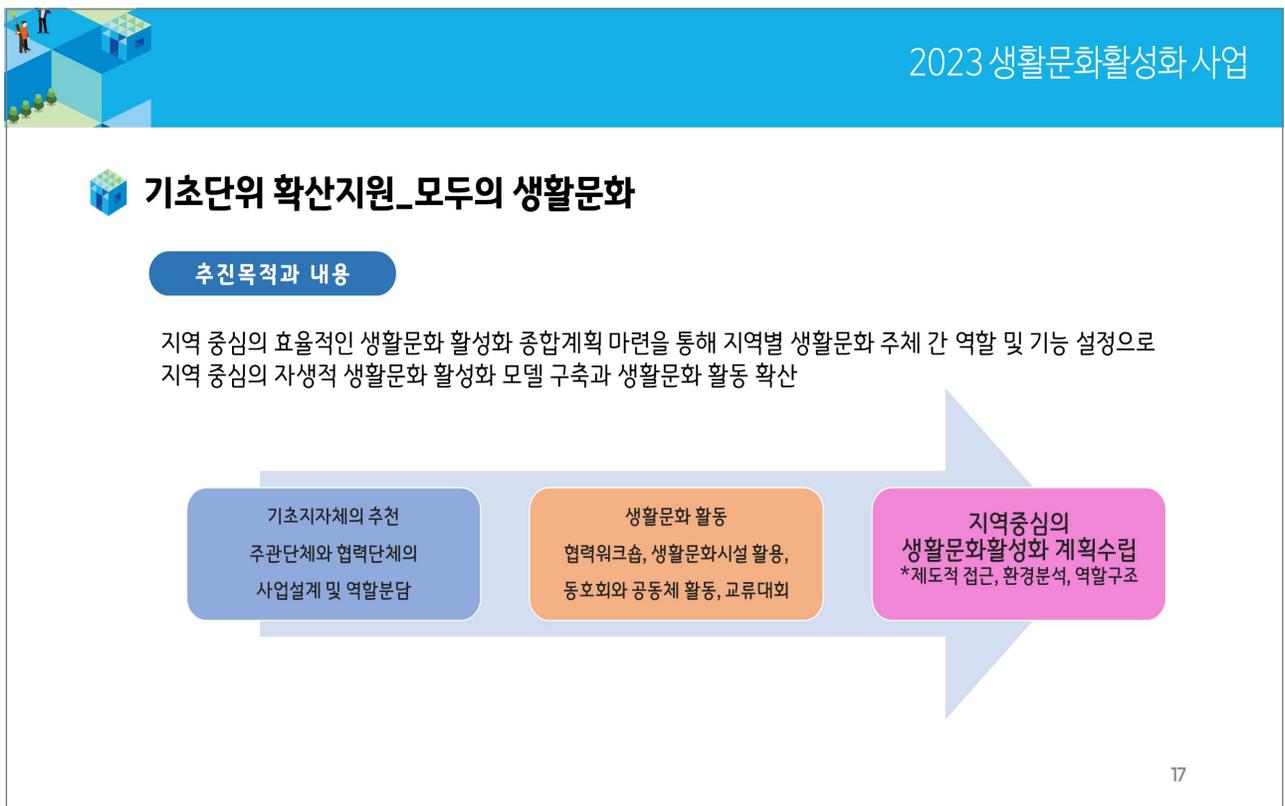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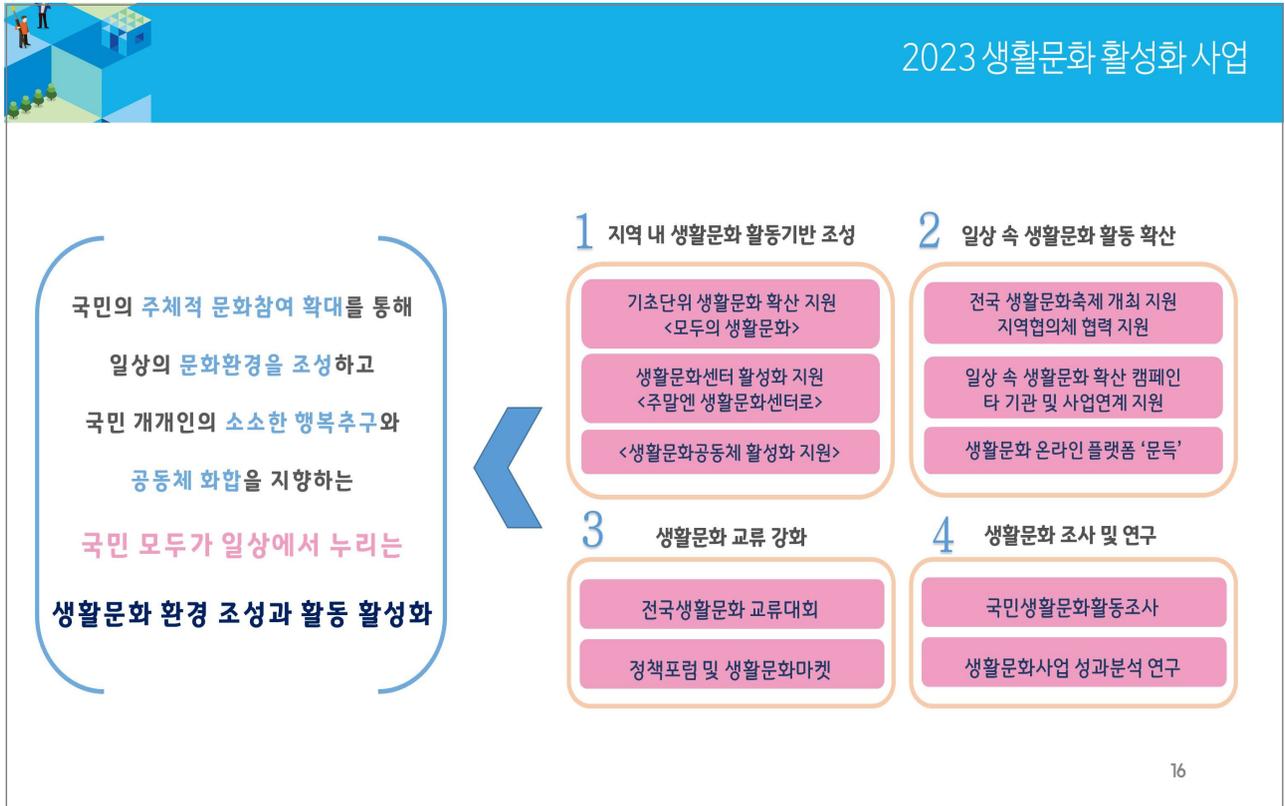


##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환경 조성		삶의 변화			
목적	생활문화 <b>기반 조성</b>	문화활동 <b>접근성 제고</b>	삶의 <b>만족 제고</b>	개인 <b>인식 확장</b>	사회적 <b>관계 확대/활성화</b>
목표	생활문화기반 거점 구축	공간/프로그램 접근성 제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인식 제고	관계 확대 및 밀도 강화
지표	협력/연계 활성화 정도	참여기회 확대 정도	만족도 증가 정도	지역/사회 관심 증대 정도	관계 확대 및 밀도 강화 정도
산식	· 센터방문 의향 · 단체간 교류, 협력 · 지역거점형성 여부	· 접근성 확대 정도 · 문화향유기회 확대 정도	·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인식 제고	· 동호회 교류 활성화 정도 · 새 관계 형성 · 구 관계활성화
사업	· (22)생활문화동호회 · (22)협력형생활문화 · (23)모두의생활문화	· (22)생활문화동호회 · (22-23)생활문화센터	모든 사업 (22-23)	· (22-23)생활문화공동체 · (22)생활문화동호회 · (23)모두의생활문화	· (22-23)생활문화공동체 · (22)협력형생활문화

14







###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 추진목적과 내용

생활문화 활동 주체간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통한 읍.면.동 생활권 단위에서의 자생적·지속적 생활문화 활동 여건 조성

생활문화활동  
민간단체, 생활문화시설과 공간,  
동호회와 주민

단체별 개별활동  
공동활동 프로그램  
계획&운영

생활권 내 생활문화 기반  
마련과 활동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확대



### 공간기반 활동 집중 지원\_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 추진목적과 내용

주민중심 주말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공간 활성화  
생활문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신규 이용층 유입(동호회 중심 -> 이용층 다양화)  
특정일을 지정한 생활문화센터 인지 확산과 생활문화시설의 다변화

주말 집중운영  
주민기획단 구성

센터공간 활용 증대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 데이, 축제 운영

지역 기반시설  
활성화 및 주민활동 증대

2023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선정 단체**

1. 모두의 생활문화: 11개 지역

구분	서울-경인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
선정	1	1	0	1	0	1	0	0	0	2	3	1	0	1	2	0	0	11
	노원	평택	-	고성	-	제천	-	-	-	무주 부안	담양	금정	-	동구	영덕 고령	-	-	-
비율	9%	9%	-	9%	-	9%	-	-	-	18.5%	9%	9%	-	9%	18.5%	-	-	100%
	18%			9%	9%				27.5%			36.5%				-		

※ 수도권: 27%, 수도권 외 지역: 73% / 인구감소지역 6곳(고령군, 담양군, 무주군, 부안군, 제천시, 고성군)

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21개 단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울산	제주	세종	기타	계
지원	15	8	3	6	11	5	21	4	2	8	15	12	16	12	2	1	1	1	143
선정	2	2	1	1	1	1	5	1	1	-	1	1	1	2	1	-	-	-	21
비율(%)	9.5	9.5	4.8	4.8	4.8	4.8	23.5	4.8	4.8	-	4.8	4.8	4.8	9.5	4.8	-	-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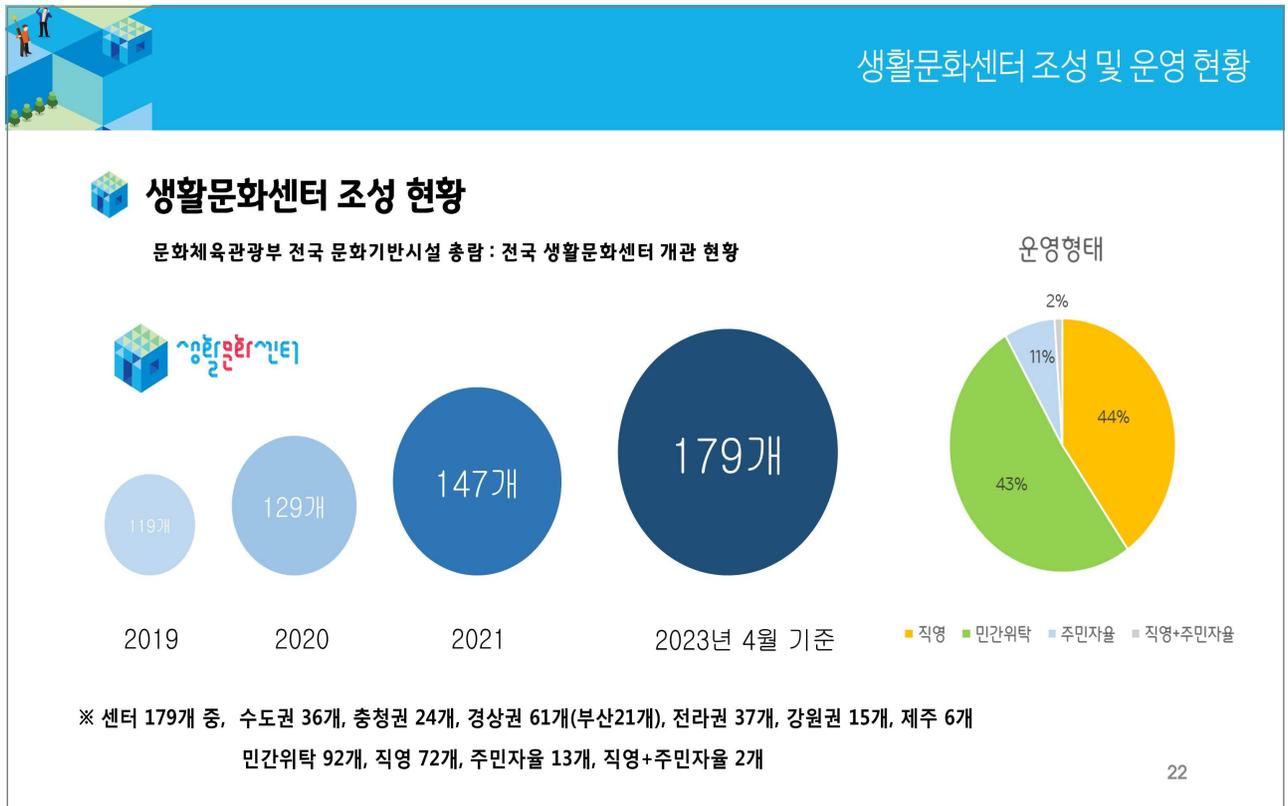
2023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선정 단체**

3.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총 24개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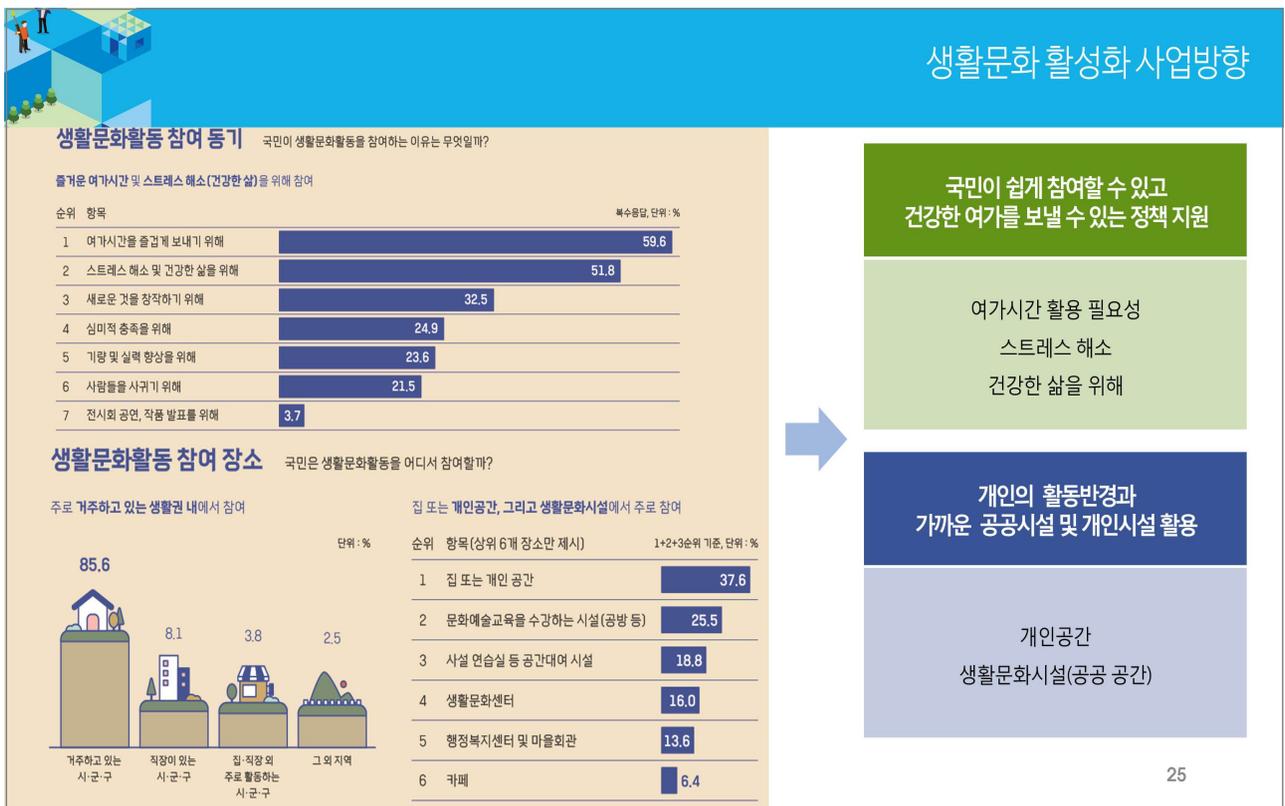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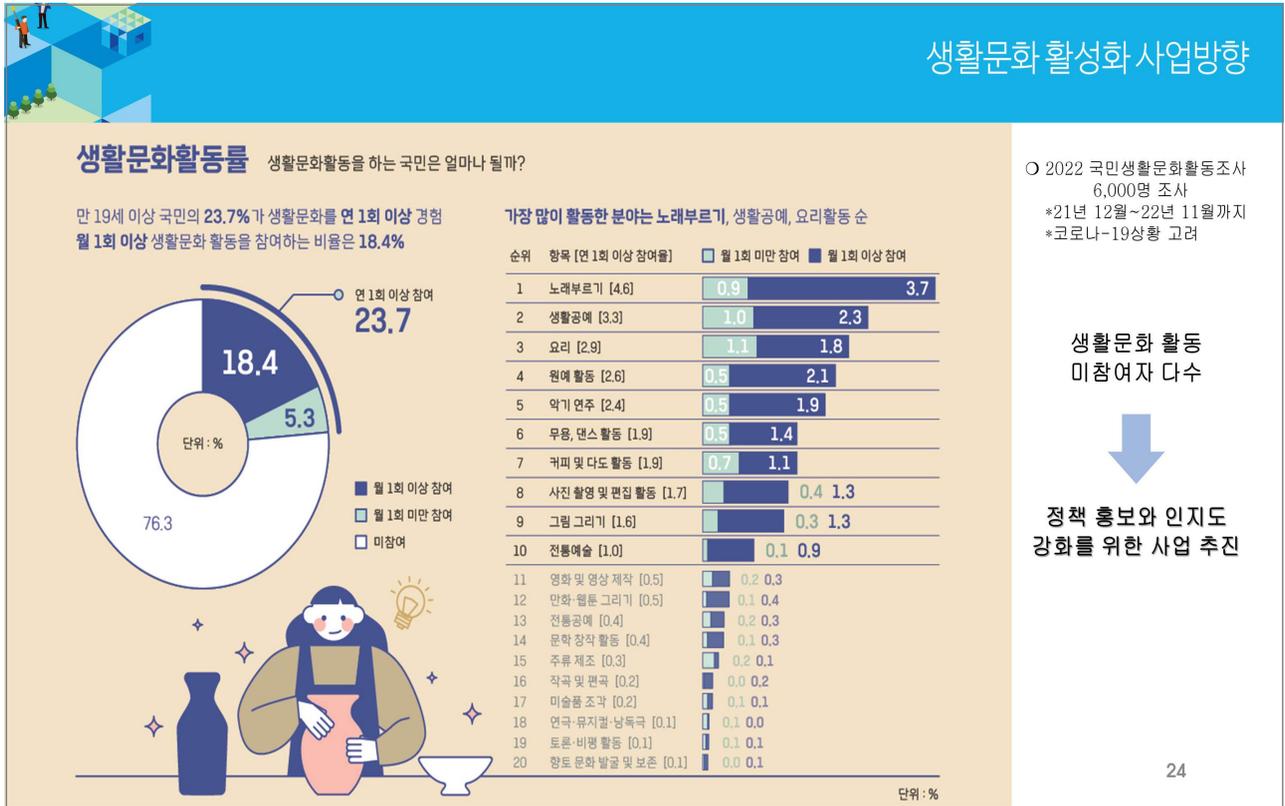
구분	서울-경인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
지원	2	4	1	-	-	1	2	1	3	4	1	3	1	1	1	4	-	29
	은평구 중로구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통담읍, 팔달면)	미추홀구	-	-	청주시	당진시 서천군	조 치 원	남구 광산구 서구	익산시 전주시 (덕진구 2곳 /완산구)	장흥 군	사하구 수영구 진구	중구	달서구	포항시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산구)	-	-
선정	2	3	1	-	-	1	2	-	2	4	-	3	1	1	1	3	-	24
	은평구 중로구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통담읍)	미추홀구	-	-	청주시	당진시 서천군	-	남구 서구	익산시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	사하구 수영구 진구	중구	달서구	포항시	김해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산구)	-	-
	25%			-	12.5%				25%			37.5%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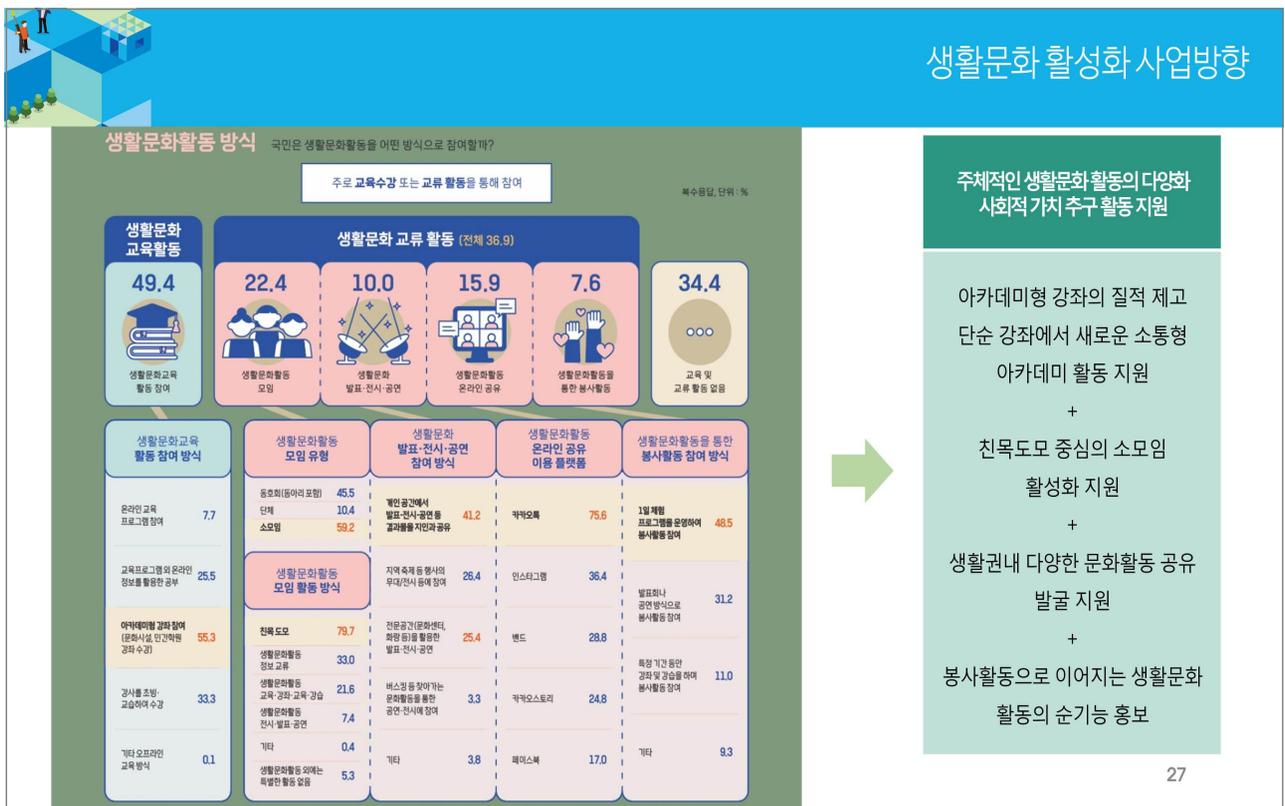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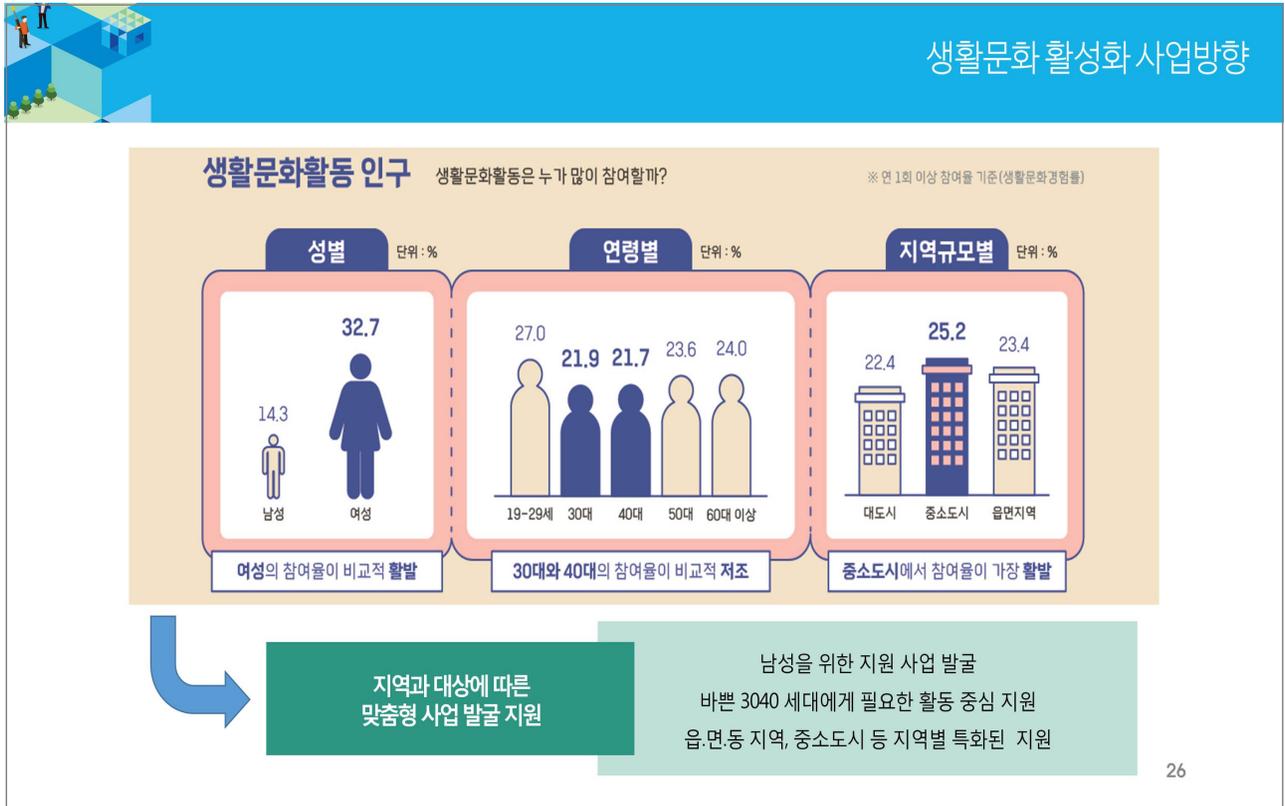
※ 수도권: 25%, 수도권 외 지역: 75% / 전국생활문화센터 179개소



## 2023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유형	모두의 생활문화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전국생활문화축제 지원	홍보 캠페인 및 연구
목표	지역 고유의 문화환경 및 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의 효율적인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지역내 참여자의 주체적 활동 지원 및 센터 이용자 유입 확대	공동체의 협력 구조 마련 및 공동기획 지원 *폐쇄-열린 구조	지역 협의체 운영 전국 협의체 운영 10주년 기념전시	접근성 확대 캠페인 인지도 제고 홍보
지원대상	11개 지역	24개소	30개 *현 21개 확정	*진주시 9월 개최 *24년 개최지 5월 선정	직접운영 및 타기관 연계
지원예산	1억6천 ~ 1억9천	2천만원~2.5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국비 5억, 지방비 00억 매칭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캠페인 운영</li> <li>✓ 생활문화 공동체 및 동호회 활성화</li> <li>✓ 생활문화시설 활성화</li> <li>✓ 생활문화특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기획단 구성</li> <li>✓ 1회 이상, 주말 특정일자 지정</li> <li>✓ 다양한 유형의 복합형 프로그램</li> <li>✓ 상시 프로그램 제공</li> <li>✓ 주민이 기획한 프로그램 직접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의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운영</li> <li>✓ 개별 프로그램 운영</li> <li>✓ 공동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개최 지원</li> <li>✓ 지역협의체 지원</li> <li>✓ 전국협의체 지원</li> <li>✓ 정책포럼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집 [문독] 관리운영</li> <li>✓ 생활문화 정책인지제고 캠페인운영(온·오프라인)</li> <li>✓ 국민문화활동조사 및 사업 성과연구</li> </ul>
협력구조	주관처 1개 협력단체 5개 이상	주관센터 1개 주민기획단 구성	주관처 1개 협력단체 2개 이상	주관처 진주문화관광재단 축제추진위원회 지역협의체 외	지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 활동가 등 전문용역사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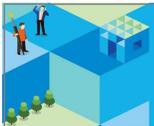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 1) 생활문화기반 조성 및 2) 일상 속 문화활동 접근성 제고를 통해
- 개인의 3) 삶의 만족, 4) 인식 확장,
- 5) 사회적 관계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갖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사회적인 교류와 공동체성 확장성에 생활문화 사업 초점



28



## 생활문화정책 및 사업 방향

생활문화1.0

예술관심자에서 향유자로 시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여건 마련과 네트워크 확장, 공간 발굴



생활문화2.0

다양한 사회문화환경 속, 지역중심 문화적 삶의 주체로  
“지역민의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주민 주도형의 다양한 영역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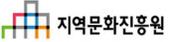
29



## 생활문화정책 및 사업 방향

- 지역 주민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의 기능 확장
-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주체성 향상의 주도
- 생활문화시설의 능동적 전환에 따른 생활권내 다양한 문화시설 혁신과 변화 반영
- 생활권내 문화시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시너지 효과

30



# 감사합니다

31

# 02

## [발표 2]

### 경기도 생활문화사업 추진 현황





# 02

C H A P T E R

## [발표 2]

### 경기도 생활문화사업 추진 현황

최진호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 경기도 생활문화사업 추진 현황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최진호

### I.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 추진 경과

- 道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재단 2015년 ‘생활문화팀’ 신설,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 시작
  - 생활문화 정의 : 일상 속에서 시민이 행하는 자발적 문화 활동
  - 생활문화 범위 : 생활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 포괄  
(예술, 동아리 활동 등 한정 X)
  -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가진 사람 ‘생활문화 디자이너’ 발굴·육성
- ⇒ 궁극적인 목적 : 문화자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것  
(지역 기반, 관계 기반의 문화사업을 통해 개인의 변화와 관계의 성장 도모)

### ○ 사업내용

추진 방향	생활문화 정책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민간단체 활동 지원확대</li> <li>• 경기도 생활문화거점 교류 강화</li> </ul>
	지역 활동 연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을 통해 발굴된 생활문화 활동가 및 단체 교류 강화</li> <li>• 이를 통한 지역내 생활문화활동 연계도모</li> </ul>
	생활문화 홍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생활문화 현장 홍보 및 온라인 공유채널 운영 강화</li> <li>• 시민취재단 운영을 통한 도민참여 확대</li> </ul>
사업 내용	생활문화플랫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문화 자원을 일상 생활에 반영한 문화활동 지원</li> <li>• 스스로 문화를 발견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생활문화주체(생활문화디자이너, 생활문화 동호회) 발굴 및 교류 확대</li> </ul>
	생활문화 유관기관 내 동호회 교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유관기관 내 동호회 및 연계 활동 촉진</li> <li>• 기관내 소속 동호회 특성에 맞는 교류 및 연구 프로젝트 기획하여 지역내 생활문화 활성화</li> </ul>
	생활문화 유관기관 교류 및 연계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유관기관 그룹별 사업 공유 및 이슈발굴, 의견수렴을 위한 정기적 협업 추진</li> <li>• 생활문화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연계방안 논의</li> </ul>
	생활문화 주체자(매개자 및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 이해제고 및 지역사회 의제해결 등에 대한 시각 전환</li> <li>•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아이디어 실현 및 실무역량강화 워크숍 추진</li> <li>• 현장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 활동가 중심으로 참여자</li> </ul>
	생활문화 축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참여 단체 및 활동가 중 선정을 통해 축제추진단 구성 및 단체 성격에 맞는 생활문화축제 추진</li> <li>• 축제와 관련된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등 생활문화 캠페인 수행</li> </ul>

## II. 경기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실천계획

○ 2020 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 지역문화 여건변화 및 현황 분석, 5년간(2015~2019)의 성과와 한계 분석, 문화진흥 발전방향 제시

<b>비전</b>	도민이 있는 문화,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b>가치목표</b>	자치	공정	향유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	정당한 보상이 있는 문화	누구나 누리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2021년)</li> <li>- 매년 300만 명 이상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li> </ul>		
<b>전략 및 핵심과제</b>	3.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활문화 시설 확충 및 활성화</li> <li>② 문화기반시설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li> <li>③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li> </ul>		

### ①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생활문화 동호회·공동체 지원

(시설확충) 생활문화 활동 거점공간 활용 생활문화센터 지속 확충 ('19. 누적 20개, '20. 22개 추가 조성)

(시설활성화) 도민이 자발적·일상적·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

- 생활문화단체 활동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 ② 경기생활문화플랫폼 확대 운영

- 생활문화주체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 주민주도형 생활문화 활동 확대
- 주체 발굴 및 기획,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문화코디네이터 발굴 및 육성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생활문화 공동체간 교류, 활동 네트워크 지원

### ③ 생활문화축제 지원

-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의미 부각, 지역 주민 참여 제고 등을 위한 생활문화 축제 개최

○ 경기도 생활문화 실천 계획

구분	분야	세부 내용																																									
민선7기 공약실천 계획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p>지역생활문화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문화의 날’ 운영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 226개소 기존 예술공연, 경기도 문화의 날 연계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등 : 2,228회</li> <li>·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활성화 생활문화센터 조성 : 6개소 생활문화 동호회 프로그램 지원 : 200개소</li> <li>· 박물관·미술관 운영프로그램 지원 확대 : 140개소</li> </ul>																																									
민선8기 공약실천 계획	문화예술, 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	<p><b>공약달성 확인지표</b></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확인지표</th> <th rowspan="2">단위</th> <th rowspan="2">목표 총계</th> <th colspan="5">임기내 연도별 공약달성 목표</th> <th rowspan="2">2026년 12월말</th> </tr> <tr> <th>목표</th> <th>2022년</th> <th>2023년</th> <th>2024년</th> <th>2025년</th> </tr> </thead> <tbody> <tr> <td>생활문화센터 조성</td> <td>개소</td> <td>9</td> <td>9</td> <td></td> <td></td> <td>1</td> <td>4</td> <td>4</td> </tr> <tr> <td>지방문화원 건립 지원</td> <td>개소</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3</td> <td>2</td> </tr> <tr> <td>공립박물관 건립 지원</td> <td>식</td> <td>착공</td> <td>착공</td> <td></td> <td></td> <td>기본설계</td> <td>실시설계</td> <td>착공</td> </tr> </tbody> </table>	확인지표	단위	목표 총계	임기내 연도별 공약달성 목표					2026년 12월말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개소	9	9			1	4	4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개소	5	5				3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식	착공	착공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확인지표	단위	목표 총계				임기내 연도별 공약달성 목표						2026년 12월말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개소	9	9			1	4	4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개소	5	5				3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식	착공	착공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 생활문화센터 21개소 운영, 33개소 신규 조성

지역	기존	신규	지역	기존	신규	지역	기존	신규	지역	기존	신규	지역	기존	신규
광역	1	1	구리		1	부천	2		양주	1	1	이천		1
고양	3		군포	1	1	성남	1	3	양평	1		파주	1	1
과천		2	김포	1		수원	2		여주		2	평택	1	1
광명		2	남양주		1	시흥		1	용인	1	2	하남	1	3
광주		4	동두천	1		안산		2	의왕		2	화성	3	2
합계	4	9	합계	3	3	합계	5	6	합계	3	7	합계	6	8

III.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

○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21년부터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광역-기초 시범사업 추진

- 경기도 기초문화재단 22개 설립에 따른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 모색, 단계적 이관
- 기초단위 기관-민간단체 협업 구조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맞춤형 생활문화 모델 개발

구분	'20.	'21.	'22.
기반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기관+ 3개 민간단체 시범사업 (154백만원)</li> <li>• 고양문화재단+발책부록</li> <li>• 오산문화재단+문화전파사</li> <li>• 동두천생활문화센터+변방의 목소리</li> <li>• 경기도문화원연합회</li> <li>• 한국문화의집협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기관+ 18개 민간단체 시범사업 (195백만원)</li> <li>• 광명문화재단+4개 단체</li> <li>• 군포문화재단+4개 단체</li> <li>• 양주777생활문화센터+3개 단체</li> <li>• 고양 민간 3개 단체</li> <li>• 안산 민간 4개 단체</li> <li>• 경기도문화원연합회</li> <li>• 한국문화의집협회</li> </ul>
활성화 지원	23개 플랫폼 지원 (325백만원)	17개 플랫폼 지원 (245백만원)	-

⇒ 생활문화의 출발선·환경·현안의 다름 확인, 기초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23. [기반조성] 사업지원

구분	내용	비고
예산 지원	- 2~3 : 1 매칭	
사업 내용	- 생활문화 단체 3개 이상 연계 또는 발굴	지역 현안에 따른 조정 가능
	- 사업진행 방향 컨설팅 진행	사업단계별 컨설팅 지원 (지역별 회수 상이)
지속성 확보	- 3년간 사업 예산 편성 요청	광역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한 시·군청 및 의회 설득
예상 결과물	- 조례 제정 - 생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 지역 소재 생활문화 관련 민간 단체 현행화 - 민간 네트워크 구성 및 민간-기관간 거버넌스 구축 등	

• '23. [기반조성] 사업 참여 현황

구분	내용	비고
고양	네트워킹, 아카이빙, 라운드테이블 → 민간-기관 거버넌스 구축, 생활문화 사업 아카이빙	조례 有
광명	근거한 테이블, 뜻밖의 기획/만남/교류 → 민간 네트워크 구성, 민간-기관 거버넌스 구축	원도시 조례 有
여주세종	활동가 발굴, 지역 현황 조사,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설계 → 활동가 발굴 및 민간 단체 리스트화,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원도시 조례 有
용인	라운드테이블 및 FGI, 포럼, 공간 네트워킹, 기관 네트워킹 → 생활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의제 활성화 (시험사업 기획)	조례 有
평택시	다정한 안부, 무해한 커뮤니티, 평생 로드뷰, 불안전할 지도, 평생 레시피 → 민간 네트워크 구성, 생활문화지도, 아카이브 매거진	센터 조례 有
포천	포천 생활문화 이야기 공방, 문화 포틀럭 파티, 모두 발언 → 민간 단체 리스트화, 민간 네트워크 구성, 활동가 양성	

⇒ '23. 사업 미신청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차년도 사업 참여 독려

• '23. [활성화지원] 공모사업

대상	지원내용	선정규모	지원한도	비고
유관기관 민간단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 지역주민과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활문화 활동 •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인적자원(생활문화디자이너, 기획자) 발굴 • 생활문화 거점 공간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등	7개 내외	최대 25,000천원	3개 이상 단체 연계 및 공동 사업 수행

○ 생활문화 인적 자원 양성

- 지역 내 생활문화 인력 발굴, 지속가능한 현장 활동 및 생활문화 관련 업무 추진

사업명	내용	비고
독특학교	• 대상 : 생활문화에 관심이 있는 도민 • 방식 : 기초 단위의 민간/공공주체와 협력하여 기초 생활문화 현장 진단 및 시민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하여 지역으로 성과 환류	
활짝학교	• 대상 : 도내 생활문화 활동가 • 방식 : 기초 단위의 생활문화 관련 리서치 과제 부여 후 피드백 및 리서치 진행(리서치학교)	
실무자 워크숍	• 대상 : 유관기관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 • 방식 : 생활문화 자가진단 워크북 작성을 통한 각 지역 현황 파악 및 개선점 도출 워크숍	
협력 기획자 워크숍	• 대상 :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자 • 방식 : 생활문화 관련 강의 제공 및 전문 컨설턴트와 민간단체 컨설팅시 협력 기획자로 투입하여 컨설팅 실천 경험 제공	

○ 민간공간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생활권 내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공공 공간의 부족 및 접근성 취약의 한계 극복
-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생활권 내 공간 지원

- 추진방향

- 모니터링 및 발전방향 연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23. 신규사업으로 최대 5개 도시 선정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 (70개 공간 지원)

⇒ 9개 도시 사업 희망 회신

(문화재단-고양, 광명, 양평, 용인, 포천, 화성 / 문화원-구리, 동두천 / 문화의집-남양주)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유 민간생활문화공간  
(공방, 서점, 연습실, 카페 등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단순 주민활동 공간 및 공공기관 건립 시설 제외)

-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기획비-30% 이내 / 운영비 / 컨설팅 / 현판 제작 / 공간 임대료 등 일상 경비 불가)

**IV. 향후 계획**

○ 기초문화재단 협력을 통한 생활문화사업 점진적 이관

- 1년 주체 발굴 및 이슈 도출, 네트워킹 / 2년 조례 제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 / 3년 사업화
- 협력지역 확대를 통한 생활문화사업 이관 (기초문화재단 및 유관기관)

• 기초문화재단 현황

'23. 현재	설립 예상 (5년 이내)	불확실	비고
22개 시군	5개 시 (남양주, 시흥, 안성, 양주, 파주)	4개 시군 (가평, 동두천, 연천, 의왕)	

• 기초단위 협력사항

- ① 생활문화 관련 조례 제정 및 발전전략 수립
- ② 생활문화사업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편성, 담당자 교육 진행 등

○ 지속적인 인적 자원 발굴 및 양성

○ 경기도 내 권역별 / 인접 지역 연계 프로젝트 진행

# 03

## **[발표 3]**

### **기초단위 공공생활문화공간 운영 현황과 과제**





# 03

C H A P T E R

## [발표 3]

### 기초단위 공공생활문화공간 운영 현황과 과제

이혜진 | 광명문화재단 문화도시팀장



## 기초단위 공공생활문화 공간 운영현황과 과제

- 경기도 공공생활문화센터(공간)을 중심으로

| 광명문화재단 문화도시팀 이혜진

## 경기도 공공생활문화센터(공간) 현황

시군명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합계
수원시	0	27	7	2	3	3	1	0	43
용인시	0	18	14	6	1	4	1	0	43
파주시	0	18	13	5	0	4	1	0	41
고양시	1	19	10	2	2	3	1	1	39
화성시	0	16	4	2	1	3	1	2	29
성남시	0	16	3	4	1	1	1	2	28
안산시	0	15	5	6	0	1	1	0	28
부천시	0	15	6	0	2	2	1	1	27
남양주시	0	12	7	4	0	1	1	1	26
여주시	0	5	8	3	0	1	1	0	18
양평군	0	6	7	2	0	0	1	0	17
시흥시	0	12	2	1	0	0	1	0	16
안양시	0	10	3	0	0	2	1	0	16
평택시	0	11	0	0	1	3	1	0	16
광주시	0	6	5	2	0	1	1	0	15
김포시	0	7	3	2	1	1	1	0	15
양주시	0	8	2	2	1	1	1	0	15
포천시	0	7	6	0	0	1	1	0	15
안성시	0	6	4	1	0	1	1	0	13
오산시	0	7	2	1	0	1	1	0	12
이천시	0	5	4	1	0	1	1	0	12
과천시	0	3	4	2	0	1	1	0	11
광명시	0	6	1	0	0	1	1	2	11
가평군	0	4	0	4	0	1	1	0	10
군포시	0	6	0	0	1	1	1	0	9
의정부시	0	6	0	1	0	1	1	0	9
의왕시	0	3	2	1	0	0	1	1	8
하남시	0	5	1	0	0	1	1	0	8
동두천시	0	2	2	0	1	1	1	0	7
구리시	0	3	1	0	0	1	1	0	6
연천군	0	2	2	0	0	1	1	0	6
경기전체	1	286	128	54	15	44	31	10	569

경기도민의 라이프스타일별 문화소비동향 (2022. 12. 경기문화재단)

### 1. 생활문화센터 (16개소)

동두천(직영), 고양시(2), 수원시((3), 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2), 평택시, 김포시, 군포시, 하남시 (2020년 개관)

### 2. 문화의집(9개소)

남양주시, 서현, 성남, 하안, 향남, 봉담, 의왕, 고양, 역곡(민간)

### 3. 지방문화원 (31개 시군)

수원시(생활문화센터), 의정부시, 성남시(문화의집),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평택시,동두천시(생활문화센터), 안산시, 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경기도 문화재단 내 생활문화 전담부서 현황

연번	지역	지역	재단명	부서명	
1	서울	광역시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팀	
2		기초	관악문화재단	생활문화팀	
3		중구	중구문화재단	생활문화팀	
4	부산	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	
5	인천	기초	서구	인천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팀
6		연수구	연수문화재단	생활문화팀	
7	대구	광역시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운영팀	
8	울산	기초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9	세종	광역시	세종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10	경기	광역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11		기초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생활문화팀
12			군포시	군포문화재단	생활문화팀
13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센터
14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부
15			양평군	양평문화재단	생활문화팀
16			평택시	평택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17	화성시	화성문화재단	생활문화팀		
18	강원	기초	강릉시	강릉문화재단	생활문화팀
19	충북	광역시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생활문화팀
20	충남	기초	공주시	공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21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22		천안시	천안문화재단	생활문화팀	
23	전북	기초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24		전주시	전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25	경북	기초	포항시	포항문화재단	생활문화교육팀

자료 : 지역별 문화재단 홈페이지 조차도 참고 (검색일자: 2022.01.13.)

### 1. 경기도 문화재단

#### - 광역(1)

경기문화재단

#### - 기초(22) :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문화예술, 양평, 여주세종,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평택시, 포천, 하남, 화성

### 2. 경기도내 생활문화센터 및

#### 문화의집 운영 문화재단

#### - 광역 : 경기문화재단

#### - 기초 :

군포생활문화센터  
부천생활문화센터 (오정,소사)  
양평생활문화센터  
보정역생활문화센터(용인)

### 기초단위 주요 생활문화사업 - 생활문화정책 연구



광명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현황 연구조사



### 기초단위 주요 생활문화사업 -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기초단위 주요 생활문화사업 -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 기초단위 주요 생활문화사업 - 공간대관



## 기초단위 주요 생활문화사업 - 민간 연계공간 발굴



## 기초단위 주요 생활문화사업 - 생활문화축제



## 공공생활문화공간의 운영유형 별 특성

### 1. 직영형

- 기초지자체 내 공무원의 순환보직형태의 담당배치
- 지자체와 소통의 편리
- 대관사업 중심, 대내외 네트워크나 국도비 관련 생활문화공모사업 참여율 낮음

### 2. 위탁형 (문화원, 주민자치위원회, 민간단체 (민예총 등))

- 주민자치센터 운영형
  - : 주민자치내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진행
  - : 생활문화센터나 문화의집명을 하고 있으나, 타 주민자치센터와의 차별성을 갖기 어려움
- 문화원, 민간단체 운영형
  - : 기본적인 공간의 기능 외에 운영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독특한 공간만의 특색을 갖춘 운영 가능 (예술교육형, 동아리활성화형, 장르별 특성 강화 가능)
  - : 2-3년마다 위탁심사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의 가능성으로 직원들의 업무안정성이 낮음
  - : 위탁단체의 주요목적사업에 따라 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나 운영사업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3. 기초문화재단형

## 기초 문화재단에서의 공공생활문화사업 및 공간운영 특성

### 1. 기초단위 생활문화공간의 전문화된 운영

-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배치
- 지역의 생활문화정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현하는 거점의 기능 수행
- 규모의 문화재단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지자체 전체를 함께 아우르는 사업 국가정책사업 등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 마련

### 2.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이용의 편리성

- 통일성 있는 운영규정 마련으로 시설별 공간이용규칙에 대한 혼선을 줄임
- 재단을 중심으로 통합적 시설관리체계로 관리되어 시설파손이나 이용환경 개선 용이
- 재단을 통한 시설홍보 강화, 재단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한 운영

### 3. 운영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 위탁변경에 따른 고용과 직원복지 관련 안정감 확보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기초 문화재단에서의 공공생활문화사업 및 공간운영 특성

### 4. 문예회관 중심의 공연전시사업, 지역축제 등 대규모 사업에 집중된 사업구성

- 인력투여에 비하여 성과가 빠르게 드러나지 못하는 사업 특성상 후순위를 밀리는 경향
- 사업의 특성상 지역내 생활문화관련자와의 관계구축이 중요, 재단내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담당자 변경에 따른 문제 발생

### 5. 재단내 통합적 운영방향에 따른 획일화

- 통일된 생활문화, 공간운영 방침에 따라 공간별 특색 감소

### 6. 운영인력의 행정화

- 행정공무원 수준의 행정서류와 규정, 재단의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보수적 시민대응
- 신규직원의 경우 시민대응과 공간운영에 매몰되어 기획자로서의 성장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기초단위 주요 생활문화사업 정책 및 사업운영 시사점

### 지역내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평생학습의 사업간 차별성 강화와 기관과의 네트워크 필요

- 기관별로 공동체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고
- 생활문화정책 및 사업 또한 최근 개인의 활동으로 생활문화활동을 확장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공동체예술, 커뮤니티 아트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성으로 비취질 수 있음 평소 기관간 연계로 이를 지역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필요

### 생활문화사업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 시민과 가까운 언어,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워크숍, 교육 필요
- 생활문화사업 특성상 공간운영자,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자와의 관계를 얼마나 만들었는가에 따라 사업의 완성도의 차이 발생

## 기초- 광역단위 생활문화 연계 시사점

1.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 및 가치 공감대 형성 필요
2. 광역단위 생활문화 담당자 공동연수 및 정기회의 활성화
3. 지역별 생활문화참여자의 활동을 읽어주는 전국단위, 광역단위의 생활문화멘토 연계



감사합니다.

# 04

## 본문





- **황순주** | 생활문화 개념이 나온지 오래되었습니다. 생활문화진흥원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전국의 문화의 집, 문화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도시 국가정책이 진행되면서 생활문화, 시민의 역량, 커뮤니티 등이 문화도시에 집중되고 과열되는 양상도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가 정책적으로 정합적인가? 합목적적인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생활문화정책 수행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가 직접 하는 것, 국가와 협력하여 광역 지자체가 하는 것, 기초 단위에서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등의 체계에 대한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주체가 시민들이라는 것이고, 우리 고객인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생활문화 정책의 지역화 방안입니다.



## 인사말

- **유인택** | 비도 오고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상캠퍼스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전문예술 활동을 해와서 생활문화는 잘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생활문화, 생활예술에 대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 **조미자** | 생활문화를 하다가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이 정책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생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정책이해도가 낮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쉽게 풀어서 도, 기초의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토론 열심히 듣고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순석** |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의 히트 정책이 뭐냐? 브랜드로는 '문화가 있는 날'이 인지도, 국민체감도, 정책 일관성을 가졌고, 최근 '문화도시'사업도 전국적인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더 뽑으라고 한다면 생활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문화 관련해서는 90년대 중반에 문화복지 차원에서 처음 언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유럽 모델을 가져와서 문화의 집을 만들었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었고 이곳 상상캠퍼스에도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생활문화'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 법적인 정의도 여러 갈래가 있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생활문화는 정의내릴 수 없다. 마치 문화의 정의가 포괄적이듯이 생활문화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 최근에 생활예술로 많이 표기하고 있는데, 생활문화에서의 생활은 일상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 생활예술에서의 생활은 아마추어, 시민참여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는 생활문화를 단순한 아마추어의 장르 동아리 지원사업 정도로 치부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참여, 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자리는 정책이 현장에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전달체계에서 정부(지역문화진흥원), 광역, 기

초, 현장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기능적으로 나눌 것이냐, 경기도 현실에 맞게끔 경기도 버전의 생활문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6년 정도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이라는 다른 광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실험을 꼭 해왔고, 나름의 성과와 과제를 남겨두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바람직한 경기도민, 현장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제발표 : 종락 】

 **종합토론**

• **조미자** | 문화자치가 2021년 만들어지면서 모든 것을 통합 운영하려고 했는데, 문화자치조례가 부각되지 않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자치와 지역문화진흥법 이후의 지역문화, 그 속의 가장 근간인 생활문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업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문화의 집이 문화복지 측면에서 시작한 것은 맞지만, 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어렵게 이어와 경기도에는 9곳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방이양이 넘어가면서 근근이 이어오던 문화의 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몇 곳이 이어지다가 박근혜 정부 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만들어졌는데, 기적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활문화센터를 만들려고 보니 추구하는 목표를 잡다 보니 그 이전에 있던 문화의 집이 다시 거론이 되고,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성격에 차별성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차별성, 대표성 이런 단어를 드러내라는 요구가 많은데, 모두가 대표고 모두가 차별되는 그런 지점을 재해석해주고 정리해주는게 생활문화인데, 생활문화 자체의 정의, 범위나 여건들을 규정하려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모호하다’, ‘조작적 정의다’ 이런 언어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을 이렇게 모호하게만 볼 수 없는 구조는 알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져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뉘지 못한 것도 맞아요. 그 이유는 유지해야 하고, 예산이나, 이해진 팀장님이 말한 생활문화를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말아야 하는 그런 일로 여기고 있었던 구조 때문에 유지만 하고 확장이 안 된 것입니다. 의회 10개월 동안 사업과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제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은 과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소통의 약함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를 좀 활용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예산보다는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의 진정성과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 등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수혜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생활문화 사업이라고 봅니다.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정책의 한 부분들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인력을 만들고, 교육하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가’라는 맥락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공간, 사람, 콘텐츠를 어떻게 정책 안에서 풀어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호** | 저는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제 정체성은 지역문화 기획자로 갖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 저는 박쥐라고 얘기합니다. 박쥐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중요한 두 거버넌스의 주체를 연결하는 연결지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해진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초 생활문화센터의 장점과 단점에 공감합니다. 동두천은 재단이 없어서 재단이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 보다는 단점이 많은데, 지역문화진흥원이나 경기문화재단의 사업들로 동두천 생활문화센터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성과가 어느 정도 동두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두천은 70명 정도 아주 작은 생활문화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이 배치되면서 활성화되었고,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움트기 시작했고, 지역 내 공동체를 연결하는 방향이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두천에는 생활문화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생활문화의 과정과 경험들이 강렬하지만 짧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생활문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았을 때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재단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사업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를 토로하고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관이 필요합니다. 재단이 있어도 문제는 있겠지만,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현재는 확장할 수 없는 영역인거죠. 그러면 재단이 생길 때까지 생활문화를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재단이 없는 기초 직원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저는 3가지 방향과 2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경기문화재단 발표문 중에 ‘주민의 주도성을 독려한다.’, 이 말에는 활동가의 뼈를 갈아 넣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책을 하면은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된다 싶다가 무너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이 있건 없건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생활문화 정책을 각 시군으로 내리고자 하면, 각 시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시에서 생활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처럼 재단이 없어도 문화원, 예총, 문화의 집,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하지만 생활문화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 문화원은 시예산에 종속되어 있어서 전문 활동을 펼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이 그런 부분을 컨설팅하거나 지역 전담 컨설턴트 그룹, 지역을 알지 못하고 컨설팅하는 것 공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이 생활문화 정책을 일괄적으로 이양하기보다는 31개 시군을 구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잘하는 시군은 지원만 한다면, 재단은 있지만 생활문화 영역이 미숙한 지역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던가, 동두천처럼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컨설팅, 지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 혹은 지역의 활동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결하는 방식, 경기문화재단의 2021년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이 이런 식이었거든요. 활동가들과 센터를 연결하는 방식, 결국 실패했지만. 그것도 계속 반복재생(오토리버스)입니다. 사실 나눈다는 것은 담당자의 뼈를 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 인력입니다. 발굴되었거나 외부에서 들어와 활동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문화 정책의 중요성, 인구소멸,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활문화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문화 영역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가슴 떨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 생활문화로 돌파할 수 있겠구나! 긍정적인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요성을 자료에는 떠다니지만, 이것을 각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뼈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담당자로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강현조 팀장님 발표에서 ‘문화의 날’과 ‘생활문화’ 사업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초 시군에서 ‘문화의 날’은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지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단체를 이 문화의 날로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연도부터 ‘문화의 날’ 사업이 도시업으로 바뀌면서 다들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문화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계점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예술동아리와 아마추어 동아리가 다른데, 그 통합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임은옥** | 저는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 관련 부서에서 6년 정도 업무를 담당하고, 경기창작센터로 옮긴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생활문화 관련 업무는 경기창작센터에서도 지속하고 있는데, 국도비 60억 규모로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는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

첫 번째는 중앙, 광역, 기초와의 업무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동아리 지원, 센터 운영 및 생활문화 활성화 등 비슷한 사업들이 중앙, 광역, 기초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화를 생각하면 중앙과 광역과 기초가 각자 잘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꼭 필요한 영역을 집중해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중앙은 연구,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고, 광역은 기초와의 네트워크, 활동가 교육, 기초는 현장에 밀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점을 찍고 역할을 분담하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는 광역 단위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지정받았을 때의 역할 모델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도 생활문화센터 조성기금을 2번 정도 받아서 리모델링 했고, 경기창작센터도 현재 조성 중으로 재단에서만 3번째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상황입니다.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고민하는 지점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매뉴얼 자체가 다목적홀, 방음시설, 연습실 조성 등 공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거점형보다는 지역 생활권형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운영 시에도 공간 활성화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지역민의 생활문화 확산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상캠퍼스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 한광연이 주최해서 경기,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관계자가 모여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광역 생활문화센터 관계자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는 것이 더 맞고,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조 팀장님이 말씀하신 생활문화 사업의 재정비에서 광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의 기능 조정을 논의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분담이 된다면 기초문화재단이나 민간 생활문화단체 등에서 광역문화재단에 바라는 교육이나 기관 간 네트워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 **강현조** | 거점센터 관련 부분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 내에서 녹여보려고 해봤습니다. 179개 조성이 완공되지 않았고, 직영과 위탁 등 주체와 기능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경기, 부산, 전라도 밖에 없습니다. 센터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곳이 5곳 정도인데 올해 이런 간담회를 통해 기초재단과 광역재단의 역할분담을 처음으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겉으로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중앙의 역할을 수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초재단과 비슷한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광역의 역할과 비슷해져가고 있지만, 저희도 이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있는 구조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상비가 없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광역 중심으로 거점을 만들어서 네트워킹 하는 것들은 추진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팀에서 고민 중입니다.

아카데미와 네트워킹에 대한 의견에는 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서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전략기획팀에서 추진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예술위원회가 인력개발원 통해서 하는 온라인 사업이 있지만, 지역문화진흥원 내 아카데미 안에서 전문인력 양성 과정과 배치지원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신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전국 생활문화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와 현장활동 내용을 커리큘럼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은 있지만, 진흥원의 기능적 역할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야 진행된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경기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더 잘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최지호 주무관님의 질문에 답변하자면, 일단 ‘문화의 날’과 ‘생활문화’는 예산이 다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향유를 중심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만 했다가 주간으로 확장을 했었고, ‘생활문화’ 사업은 문화향유+문화 주체의 문화생산자 역할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더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업은 기존에는 추진기관이 달랐고 기관의 역할에 따라 기능적으로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달랐지만, 현재는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예술 중심의 향유 사업들을 추진했었고, 현재는 2018년부터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사업들이 이관되면서 생활문화 구조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도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활문화가 더 상위 개념으로서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로 가야 지역문화진흥 계획안에서 생활문화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에 예산구조에서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정책적으로 특정 날을 홍보하고 브랜딩하고 인지시키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홍보성 예산이 있었고, 생활문화 사업들도 앞으로 이런 성과적인 측면들을 시각적인

디자인, 정량적인 데이터로써 보여주고 브랜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개별 예술단체들이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지만, 생활문화는 네트워크 구조나 협업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진흥원은 광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정책제언을 하고 만들어 드리는게 역할이라고 보고, 진흥원도 지금 그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순석** |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진흥원이 고민하는 내용을 우리는 처음 듣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흥원이 그런 계획을 짤 때 경기문화재단이나 기초 재단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만 샘플링해도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의 유기적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매뉴얼과 초창기 운영매뉴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박근혜정부 때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생활문화센터로 명칭 변경되면서 생활권 커버리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서 아쉽게도 생활문화센터의 분류 체계 안에는 광역이나 거점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곳이 있으니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제안을 임은옥 팀장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지호 주무관님은 본인이 증인이신 것 같아요. 경기가 6년 동안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열심히 했고, 현장에서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의 의미를 읽어내는 분들이 계신데, 의외로 정책이나 사업으로 반영될 때 늘 벽에 막히는데, 경기문화재단이 6년 간 추진한 이 사업의 의미가 뭐고 올해 사업의 의미를 설명해낼 때, 즉 증명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발굴되었는지를 ‘최지호’라는 인물과 동두천이라는 지역을 비춰봤을 때 결과를 넘어선 성과와 그로 인한 임팩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의 최소 시간은 얼마이며,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 **황순주** | 요즘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스타필드를 얘기하지 상상캠퍼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생활문화는 3무와 3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무는 정의할 수 없고, 표 안나고, 성과가 없습니다. 3유는 중앙, 광역, 기초가 경쟁하고 있고, 사업이 중첩되어 있고, 번아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속가능 했으면 좋겠고, 표나고, 성과도 나고, 뭔가 손에 잡히면 좋을 것 같고, 하는 사람들이 보람있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있죠. 진접 문화의 집의 부침개 페스티벌, 동두천여성 고적대 복원사업 이런 것이 생활문화라고 얘기하면 예술경영자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행정적 측면이 강하고, 예술경영적 측면에서는 향유나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관점에서 보면 의미나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역에서 큰 도시의 문화정책을 다루다 보면 표나고 표가 되는 사업들을 해야 하니까 손에 안 잡히는 것들은 그만하라는 얘기 듣기 십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상상캠퍼스라는 공간에 생활문화센터를 우리가 직영해야 하는가입니다. 반경 20km 이내의 고객의 80%가 수원 시민입니다. 이것을 광역형 거점센터로 활용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모델을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중소도시들도 다 이런 공간들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상상캠퍼스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는 안 나지만 생활문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스며들 듯이 가져가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장에서 하는 다양한 생활문화 사업, 진흥원, 국가 사업들이 또 중첩되어 광역문화재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하는가? 그리고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기초에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공학적으로는 얘기 가능하지만, 기초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준다고 다 되는가?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례가 있는가? 그런 겁니다. 최근 문체부가 분권과 자치라는 기치로 다양한 센터와 많은 일들을 광역재단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문화진흥원과 중첩을 없애자고 하면 진흥원의 생활문화 정책을 다 없애고 광역이 다 하라고 할거고, 그러면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광역이 하고 있는 일을 덩어리째로 기초에 던지면 기초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문화재단에게 경기상상캠퍼스 일부를 같이 운영하자고 했을 때 협업구조가 잘 만들어질까요? 이런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데, 번아웃 없이 물 흐르듯이 현장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윤석열정부가 지역문화진흥 이행전략으로 11개 전략을 내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일상 속 15분 문화생활권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슬세권 문화벨트 조성인데, 이것은 김동연지사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공약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15분 생활권 내에 생태적 이동, 문화적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연결하면 경기도에 약 300개 나올 것이고, 이것을 정책 지표화하여 집중해서 공간, 네트워크,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정책에서는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져가서 예산도 별로 안 들고 슬로건으로만 나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8기가 출발했지만, 생활문화권(슬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생활문화와 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까지 정책 단위가 아니라 도시별, 권역별로 정책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는데, 왜 정책으로만 들어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설득을 못하냐. 생각해보면 저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500억 이상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사업이 아닌데 문화의 날 사업이 54억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말했었던 것은 생활문화 영역이었거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문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 '문화 창작의 기회 확대'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아파트에 가서도 문화향유를 해도 된다.' 정도로만 공간을 해석하는 바람에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문화향유는 생활문화 입장에서는 좀 편해요. 지역의 좋은 자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이 확 줄어요. 의원이 있다고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죠. 이런 맥락에서 향유와 생활문화가 혼재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문화 활동의 성격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거죠. 전에는 보기만 해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구분짓기 보다는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생활체육이 갑자기 보편화될 때 가장 이해시키기 좋았던 것이 '의료보험료가 절약됩니다.', '일상에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식의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 생활문화는 '삶의 질', '문화를 통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고, 영국은 '외로움 장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문화로 접근할 수 없는가? 문화는 모든 분야에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곧 생활문화인데 이것을 몇 마디 말로 규정하려는 것에서부터 저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살펴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베드민턴장, 축구장을 많이 만들었고, 거기에 생활문화를 대입해보면 공간들, 있는 공간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면 어떨까.

그리고 저도 20년 동안 현장 생활을 해왔는데, 항상 나온 것이 전문인력 양성, 활용 사업들이었는데, 그 많은 전문인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해진 팀장님처럼 결국은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이나 태도에 의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왔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인력이 같이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진흥원이 계속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해주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정책 안에서 만들어내면 광역이 기초에 줄 수 있는 사업은 사업들로 가고, 이런 부분은 광역이 꼭 잡고 그 안에서 정책을 이해하는 분들을 만들어내면서 가면 어떨까 합니다. 자꾸 생활문화 전문가라고 하면 동네에서 놀 사람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이나 구조를 바꿔서, 대학과 연결해서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이 1기, 2기, 3기로 계속 이어져서 고민하고 확장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도나 재단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 팀장님이 사업은 이해하는데, 생활문화의 개념이 너무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생활문화가 좋고 내 삶이 바뀐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제가 있는 이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을 모아보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 **유인택** | 결국은 돈이죠. 지원해야 하고, 공간도 돈이죠. 그래야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민주평통 강의를 다닌 적이 있는데, 강원도 고성에서 제주까지 다녀봤는데, 여성센터, 청소년센터, 노인센터 등등 잘 지어놨어요. 또 도청의 강당, 상상캠퍼스 벙커, 한 달에 몇 번 사용할까요? 그래서 공간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디인가? 연령대? 저는 그게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생활문화의 대상, 0세부터 100세까지 5천 만이 다 인지 그게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보면, 육아맘, 은퇴 세대, 학교 밖 아이들 등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돈을 설득하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시니어 65세 이상 1천만 명, 은퇴 세대 1천 5백만 명으로 추정해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베이비부머과를 신설했어요.

생활예술은 금방 와닿아요. 흔히 밴드동아리, 합창동아리 등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생활문화는 막연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명료하게 해서 설득력을 갖춰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생활문화에는 개념적인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좀 더 와닿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상형** | 생활문화 사업이 경기도 문화정책의 주요 핵심은 아닙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53개 문화공간에는 도비가 투입되지 않고 국비와 시군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조성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생활문화사업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오늘 이런 토론을 들으니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 개인의 욕구를 공동체 안에서 문화예술로 해소시키는 것으로 저는 인지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맥을 못잡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그런데 정책을 하거나 현장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 개인이 공동체에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컨대

하우스웨어링 같이 간섭하지 않으면서 공간은 같이 하고, 즐길 때는 같이 즐기는 그런 개념으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트렌드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생활문화의 개념을 경기도의 문화적 비전이나 정책과 접목시킨다면 그런 변화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접목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의 날과 관련해서 향유라는 측면에서 말씀해주셨는데, 향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날’ 사업은 시군에 있던 사업을 도로 갖고 와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외달지 않았어요. 2017년 예술팀장을 할 때 이 사업을 했었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반,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시군에서 계속 하다보니 잘하는 데에 계속 주게 됩니다. 진입장벽입니다. 그런 것을 타파하는 데는 도에서 불특정 다수 단체를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생활문화죠.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맥은 상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사업들의 맥을 찾아본다면 정책적 아젠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홍미** | 문화예술본부 안에 생활문화 영역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지역문화진흥원과 기초의 이야기를 한번에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습니다.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대한 이야기부터 다음에라도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 년 전에 경기문화재단이 지역문화교육본부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생활문화 영역이 있고, 문화예술본부에도 생활문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생활문화를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만큼 생활문화를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예전부터 문화예술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문화도 조상형 과장님이 공동체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신 것처럼 개념이 계속 진화해나가고 있어서 생활문화를 특정해서 정의해야 하는가. 물론 정책입안과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오늘 토론회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생활문화팀에서 권순석 대표님과 같이 하는 생활문화 라운드테이블, 네트워크, 기초, 광역 공유회, 생활문화 축제 등을 통해 올해 계속 하게 될텐데, 그 안에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 많은 시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여기 오신 분들이 꼭 같이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집중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위해 숨어 있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광역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숙제이고, 그런 차원에서 예술진흥 중에 ‘모든예술31’이라는 기초광역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재단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없는 곳은 광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인구, 재정, 재단유무, 지원신청서 유무 등 상황을 촘촘히 살펴서 매칭을 차별적으로 하는 예술진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매칭 방식을 효율적으로 생활문화사업에도 매칭할 수 있다면 새로운 지표를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기초재단과 기초에서 활동하는 많은 생활문화 단체들이 경기문화재단과 사업을 할 때 행정을 간소화하면서 아이디어와 생각과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6억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죠 하는 이야기를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문이 닫혔을 때, 지역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과 생활

문화의 연결이라는 되고, 그 공간들은 연습공간이 되거나 카페에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발굴해내고 개별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지역에 소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역을 만들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프로그램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빨리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순석** |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안에는 고민과 대안도 조금씩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과격할 패러다임 시프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예술과 문화로 쓰는게 맞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그 법적 토대는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문예진흥법, 문예진흥원을 만들면서 썼던 기형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예술활동으로 등치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더 예술다워져야 하고, 문화는 더 다양하고 폭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생화문화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데올로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고 개인적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공공영역에서 예총, 민예총, 문화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과거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예술가 영역만 하더라도 신진예술가, 청년예술가,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더 많은 예술가 군도 있고요, 문화원이 태생에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그 역할과 위상이 위축된 면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삶의 질 정책과를 만들면서 생활문화를 정책적으로 도에서 다뤘던 적이 있었지만, 생활체육을 따라가면서 위계를 잡고 광역지회, 시군지회, 사무장 등을 만들면서 다양성과 자기주체성을 상실하고 위계에 의해 수직계열화해버리는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생활문화도 그렇게 하자는 요구가 10여 년 전부터 많았습니다. 그 부분만은 막아야 한다, ‘문화마저도 수직계열화, 예산의존, 행정의존도를 높여서 다양성, 자율성을 훼손하게 되면 문화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수용자 관점의 미래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광명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는 평생학습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관련 공간도 있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문화활동이 중요하지 이게 문체부인지, 행안부에서 만든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내가 문화활동을 하는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공급자 마인드였죠. 복합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중첩됩니다. 이제는 수용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것이 분권과 맞는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비어 있는 공간들을 수용자 관점에서 보자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왔던 진흥원, 광역, 기초, 이런 전달체계 사고도 과거의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는 것은 공공이고, 받는 사람은 시민이라는 잘못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현실 문제의 타계를 위한 논의가 오늘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좀 더 덧붙여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2023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 2023년 4월 25일

발행처 | (재)경기문화재단

인쇄 | 디자인세창 (T.1544-1466)

2023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 토론회 ①

**생활문화 정책의  
지역화 방안**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경기문화재단**